▣ 그림 여행

창가에서 책 읽는 소녀

(Girl Reading at a Window c. 1911)

그웬 존 (Gwen John 1876 - 1939)

(캔버스에 유채 40.9 cm x 25.3 cm 뉴욕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소박한 방의 실내 풍경이다. 커다란 창으로 빛이 들어 오고 흰 커튼이 길게 드리워진 가운데 검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책을 읽고 있다. 갸름한 얼굴에 하얀 피부가 마음을 끌고, 검소하게 보이지만 드레스와 머리 리본을 검은 색으로 매치한 것이 매력적이다. 골똘히 책에 열중한 표정도 단아하고 섬세하다.

전체적으로 톤이 가라앉은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했고 정적인 구도를 선택했기에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더 돋보인다. '가만히' 그린 것 같은 이 그림은 한없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빚어내고, 방안에 서서 '영원히' 책을 읽고 있는 듯한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 하는 호기심 마저 자아낸다.

이 그림의 화가이자 주인공은 웨일즈 태생의 영국 화가 그웬 존이다. 그웬 존은 영국 후기 인상파 화가 오거스터스 존의 여동생이었고, 유명한 오빠에게 가려 빛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 역시 매우 출중한 화가였다. 영국에서 미술 공부를 했으며,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에서 생계를 위해 모델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가 유명해진 까닭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모델을 서다가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의 연인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로댕은 그웬 존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의 관계는 10년 넘게 지속되었지만, 그웬 존의 로댕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서자 로댕이 그녀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면서 파탄에 이르렀다. 그웬 존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고, 말년에는 가톨릭교에 귀의해 종교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홀로 나선 여행에서 쓰러져 객사하고 말았다.

자화상을 비롯해 그녀가 그린 수많은 그림은 단순한 배경 속에 여성이 홀로 등장하는 초상화가 대부분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고독한 자화상을 계속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평생을 검소하게 살면서 고양이를 사랑했다는 그녀는 이 그림에 나타나듯 가냘프고 섬세한 외모와 조용한 말투를 지녔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미간을 살짝 찌푸린 이 자화상의 얼굴에는 19세기 여성이 겪어야 했던 불평등과 한계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나타나는 듯하다. 불행한 연애 사건 끝에 세상을 떠난 여류 화가가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세련되고 간결한 스타일이 높이 평가되면서 미니멀리즘을 예고한 화가로 재발견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부질없는 생각을 해 본다.

《김동백》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재료상 중 가장 큰

Brother's 청소재료상

Janitorial Supplies

도매 최저가격

무료배달

가정용 청소기구 재료에서부터
큰 빌딩 청소 각종 기구,
재료까지 완벽하게 구비!

각종 청소기계 수리 전문!
최신 청소기계 재료 다량 확보

각종 새로 개발된 청소 약품
화장지 / 각종 종이 / 타일 / 대리석
카펫 샴프 기계 / 왁스 기계
최신형 장비 일절 구비

Open : Mon-Fri 9am-6pm / Sat 10am-4pm

(562) 920-9090
(562) 920-9595

Fax. 562-920-9596

16211 Bellflower Blvd. Bellflower, CA 90706

코로나 출장 테스트

펜데믹이 끝나가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닥터그룹 (M.D. Group)은 여러분의 직장, 학교, 교회, 단체 등
각종모임에 출장 코로나 테스트를 시행해 드립니다.

- 10인 이상이면 출장 가능
- Free Test (ID 확인)
- LA/OC 및 팜데일, 빅토빌, 샌디에고 등 CA 전지역 커버

문의 폴 강 M.D. GROUP
213.330.6399 909.645.3559

*지역 사업자 모집합니다. (월 $15,000 수입 가능)